

## 부부싸움, 원인도 '남편' 때문, 화해도 '남편'이 먼저!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다. 가정의 달인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되자는 의미로,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제정되었다. 부부란 관계는 참 오묘하다. 부부는 촌수가 존재하지 않은 '무촌(無寸)'인데, 어찌 보면 한 마디의 거리조차 갖지 않은 '일심동체'라는 의미로도 해석되지만, 한편으로 헤어지면 아무 관계가 없는(無) 남이 된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이번 넘버즈에서는 한국인의 '부부싸움'과 '부부 권태기'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결혼 생활에 관한 인식을 살펴본다. 부부의 날에 무슨 부부싸움이나 하겠지만 부부싸움, 부부 권태기 요인을 살펴봄으로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부부가 가장 노력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주제를 선택했다.

주목할 만한 결과로는 부부싸움(2030 기혼자)의 경우 원인 제공자도 남편이 훨씬 많았고, 화해도 남편이 먼저 청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40대 이후 결혼생활 만족도의 경우 남성은 점점 높아지고 여성은 점점 낮아져 60대 이상 노년층의 경우 부부간 서로에 대한 만족도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었다.

###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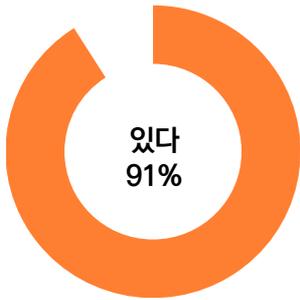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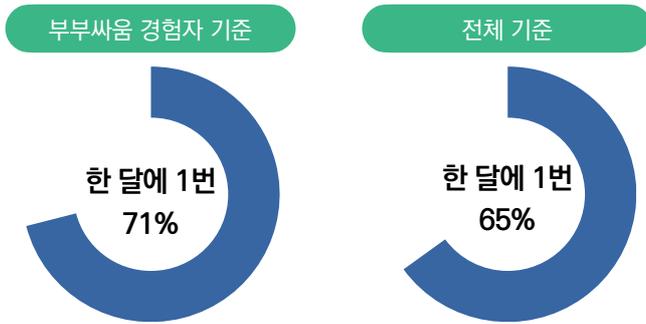
## [부부싸움 실태] 2030 기혼자 3쌍 중 2쌍, 한 달에 1번 싸워!

- 최근 결혼정보업체 듀오에서 20~30대 기혼자를 대상으로 '부부싸움' 관련 흥미로운 조사를 실시해 발표했는데 이를 살펴본다. 결혼한 2030세대의 부부싸움 경험은 어느 정도일까? 응답자 대다수(91%)가 부부싸움 경험이 있었고, 전체 부부 3쌍 중 2쌍(65%)은 '한 달에 1번' 정도 싸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부싸움 경험 (2030 기혼자)



[그림] 부부싸움 빈도 (2030 기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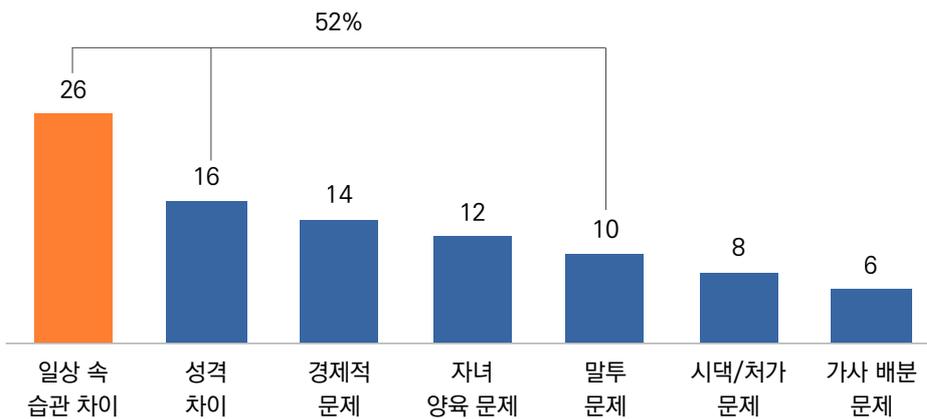
※출처 : 파이낸셜뉴스, 기혼남녀 72.8% "부부싸움 원인 제공자는 남편"..남성도 "남편 탓", 2024.01.08. (<https://www.fnnews.com/news/202401080950562053>)

※원출처 : 듀오, '부부싸움 인식 조사', 2024.01. (20,30대 기혼남녀 500명, 온라인조사, 2023.12.05.~12.06.)

## 부부싸움 하는 이유, '일상 속 습관 차이' 가장 많아!

- 부부싸움을 하는 주된 이유를 물은 결과, '일상 속 습관 차이'가 2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성격 차이' 16%, '경제적 문제' 14%, '자녀 양육 문제' 12% 등의 순이었다. 습관/성격 차이, 말투 등이 전체 응답에서 절반(52%)으로 나타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음이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림] 부부싸움의 주요 원인 (2030 부부싸움 경험자, 상위 7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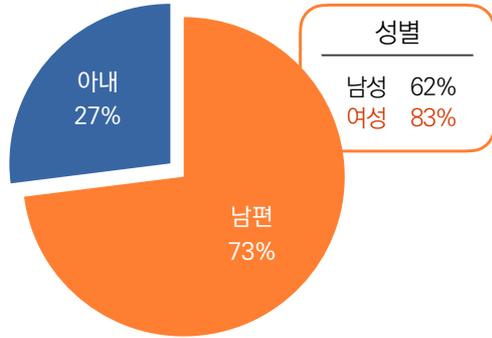
※출처 : 파이낸셜뉴스, 기혼남녀 72.8% "부부싸움 원인 제공자는 남편"..남성도 "남편 탓", 2024.01.08. (<https://www.fnnews.com/news/202401080950562053>)

※원출처 : 듀오, '부부싸움 인식 조사', 2024.01. (20,30대 기혼남녀 500명, 온라인조사, 2023.12.05.~1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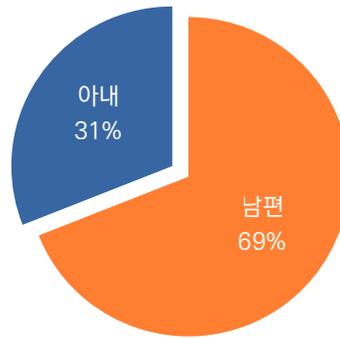
## 부부싸움, 원인도 ‘남편’ 때문, 화해도 ‘남편’이 먼저!

- 부부싸움의 원인 제공자를 물었더니 ‘남편’이 73%로 ‘아내’ 27%보다 훨씬 많았으며, 여성의 경우 83%가 부부싸움의 원인을 남편에게 돌렸다.
- 부부싸움 후 화해 주도자 역시 남편(69%)이 아내(31%)보다 적극적이어서, 부부싸움의 원인도 남편으로부터 시작, 화해도 남편 먼저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부싸움 원인 제공자 (2030 부부싸움 경험자)



[그림] 부부싸움 후 먼저 화해 주도자 (2030 부부싸움 경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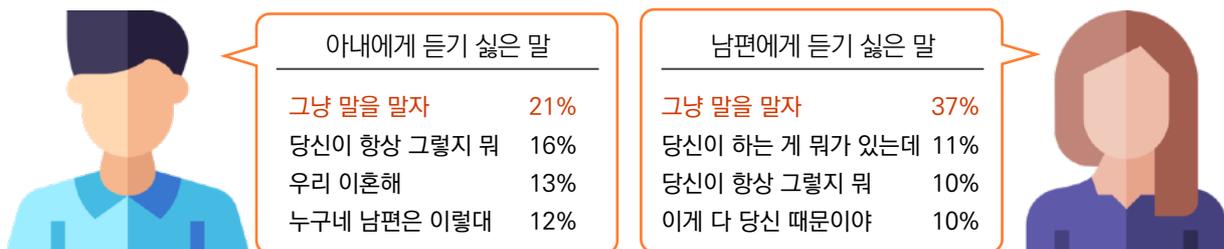
※출처 : 파이낸셜뉴스, 기혼남녀 72.8% “부부싸움 원인 제공자는 남편”..남성도 “남편 탓”, 2024.01.08. (<https://www.fnnews.com/news/202401080950562053>)

※원출처 : 듀오, ‘부부싸움 인식 조사’, 2024.01. (20,30대 기혼남녀 500명, 온라인조사, 2023.12.05.-12.06.)

## 부부싸움할 때 가장 듣기 싫은 말, ‘그냥 말을 말자!’

- 이번에는 부부싸움할 때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 결과, 남편과 아내 모두 ‘그냥 말을 말자’를 가장 높게 꼽았다. 대화를 중단하고, 무시/회피하는 태도를 부부 사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 그 외에 남성은 ‘당신이 항상 그렇지 뭐’ 16%, ‘우리 이혼해’ 13% 등의 순으로, 여성은 ‘당신이 하는 게 뭐가 있는데’ 11%, ‘당신이 항상 그렇지 뭐’ 10% 등이 듣기 싫다고 응답했다.

[그림] 부부싸움 할 때 가장 듣기 싫은 말 (2030 기혼자, 상위 4위)



※출처 : 파이낸셜뉴스, 기혼남녀 72.8% “부부싸움 원인 제공자는 남편”..남성도 “남편 탓”, 2024.01.08. (<https://www.fnnews.com/news/2024010809505620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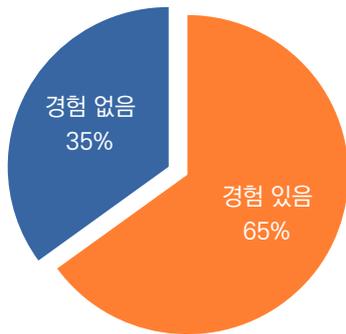
※원출처 : 듀오, ‘부부싸움 인식 조사’, 2024.01. (20,30대 기혼남녀 500명, 온라인조사, 2023.12.05.-12.06.)

#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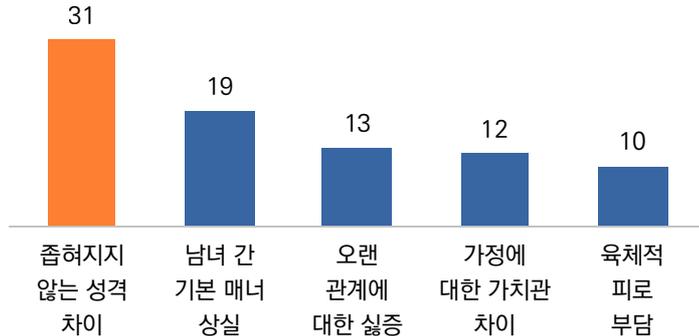
## [부부 권태기 인식] 2030 기혼자 3명 중 2명, 권태기 경험 있어!

- 2030 젊은 부부들은 권태기를 겪을까? 부부 권태기 경험을 묻은 결과, 무려 2030 기혼자 3명 중 2명(65%)이 '경험 있다'고 응답했다.
- 권태기 경험자들에게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은 결과, '좁혀지지 않는 성격 차이'라는 응답이 3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남녀 간 기본 매너 상실' 19%, '오랜 관계에 대한 싫증' 13% 등의 순이었다. 1순위로 응답한 '성격 차이'는 결국 부부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양보와 배려가 있어야 권태기를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부부 권태기 경험 (2030 기혼자)



[그림] 권태기 주요 원인 (2030 권태기 경험자,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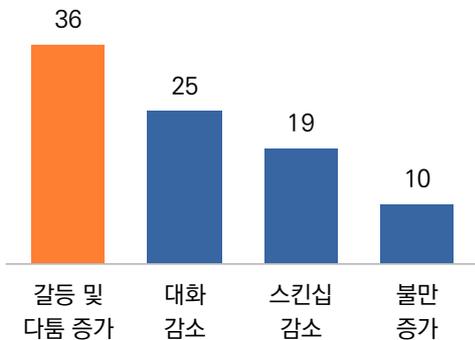


※출처: 중앙일보, "보기만 해도 짜증"...5명중 3명 '부부 권태기 경험', 2024.04.1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2832#home>)  
 ※원출처: 듀오, '부부싸움 인식 조사', 2024.01. (20,30대 기혼남녀 500명, 온라인조사, 2023.12.05.~1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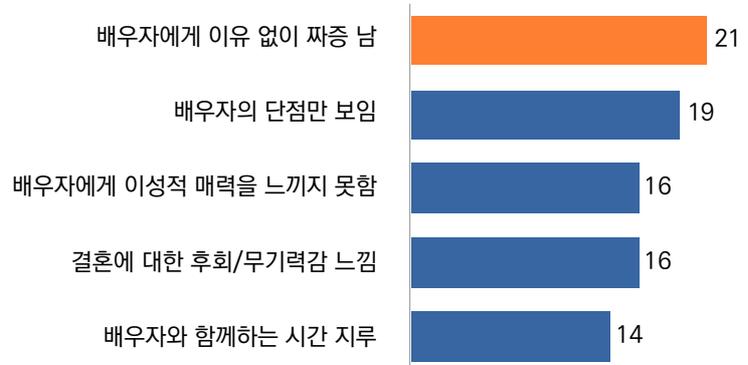
## 권태기의 징조, '갈등, 다툼' 늘고, '대화' 감소!

- 2030 기혼자들에게 권태기를 의심할 수 있는 배우자의 행동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갈등 및 다툼 증가'(36%)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화 감소' 25%, '스킨십 감소' 19% 등의 순이었다. 갈등 및 다툼은 대화 감소의 원인이 되고, 이는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키는 악순환이 되는 것이다.
- 권태기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배우자에게 이유 없이 짜증 남' 21%, '배우자의 단점만 보임' 19%, '배우자에게 이성적 매력을 느끼지 못함' 16%, '결혼에 대한 후회/무기력감 느낌' 16% 등이 고루 응답됐다.

[그림] 권태기를 의심할 수 있는 배우자의 행동 (2030 기혼자, 상위 4위, %)



[그림] 권태기의 대표적 증상 (2030 기혼자,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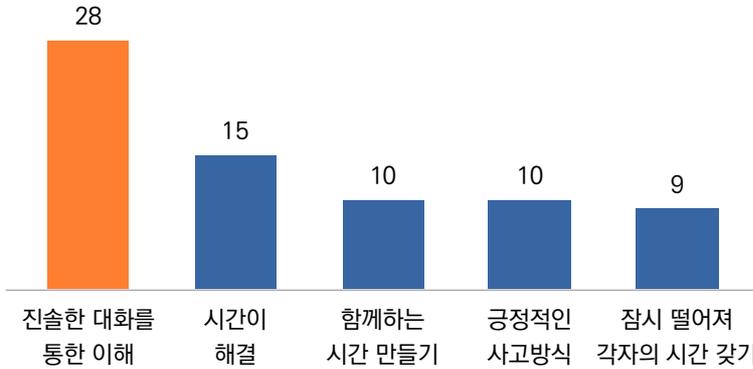


※출처: 중앙일보, "보기만 해도 짜증"...5명중 3명 '부부 권태기 경험', 2024.04.1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2832#home>)  
 ※원출처: 듀오, '부부싸움 인식 조사', 2024.01. (20,30대 기혼남녀 500명, 온라인조사, 2023.12.05.~12.06.)

## 가장 좋은 권태기 극복 방법, ‘진솔한 대화’!

- 그렇다면 어떻게 권태기를 극복해야 할까? 권태기 극복 방법을 묻은 결과, ‘진솔한 대화를 통한 이해’(28%)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시간이 해결’ 15%, ‘함께하는 시간 만들기’ 10%, ‘긍정적인 사고방식’ 10% 등의 순이었다.
- ‘진솔한 대화’와 ‘함께하는 시간 만들기’ 등 부부간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시간이 해결’, ‘잠시 떨어져 각자의 시간 갖기’보다 높게 나온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림] 권태기 극복 방법 (2030 기혼자,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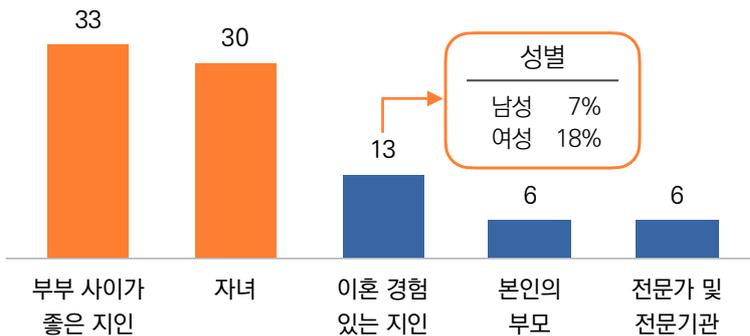
※출처 : 중앙일보, “보기만 해도 짜증”...5명중 3명 ‘부부 권태기 경험’, 2024.04.1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2832#home>)

※원출처 : 듀오, ‘부부싸움 인식 조사’, 2024.01. (20,30대 기혼남녀 500명, 온라인조사, 2023.12.05.~12.06.)

## 권태기 극복에 도움 되는 사람, ‘부부 사이 좋은 지인’과 ‘자녀’!

- 부부 권태기 극복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해 물었다. 그 결과, ‘부부 사이가 좋은 지인’(33%)과 ‘자녀’(30%)가 가장 높았다. 이는 ‘본인의 부모’(6%)나 ‘전문가 및 전문기관’(6%)보다도 훨씬 높았다. 즉 권태기 극복을 위해 도움이 되는 사람은 행복한 가정의 ‘롤모델’과 사랑하는 ‘자녀’인 셈이다.
- 여성의 경우 권태기 극복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으로 ‘이혼 경험 있는 지인’을 남성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꼽은 점이 눈에 띈다.

[그림] 권태기 극복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사람 (2030 기혼자, 상위 5위, %)



※출처 : 중앙일보, “보기만 해도 짜증”...5명중 3명 ‘부부 권태기 경험’, 2024.04.1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2832#h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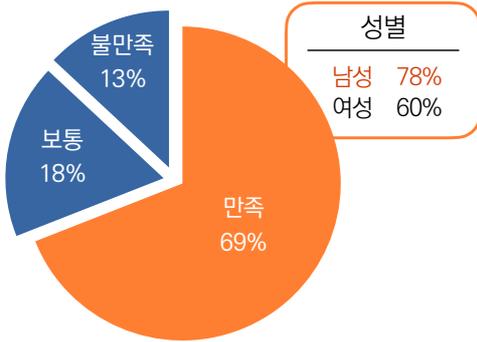
※원출처 : 듀오, ‘부부싸움 인식 조사’, 2024.01. (20,30대 기혼남녀 500명, 온라인조사, 2023.12.05.~12.06.)

# 03

## [결혼생활 만족도] 결혼생활 만족도, 여성이 남성 대비 낮아

- 최근 우리 국민의 '2024 결혼 인식 조사'(한국리서치)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해당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기혼 국민의 '결혼생활 만족도'를 살펴본다. 먼저 우리나라 기혼자들의 결혼생활 만족도를 보면 '만족' 69%, '보통' 18%, '불만족' 13%로 기혼남녀 10명 중 7명은 결혼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78%)보다 여성(60%)이 더 낮았다.

[그림] 결혼생활 만족도\* (기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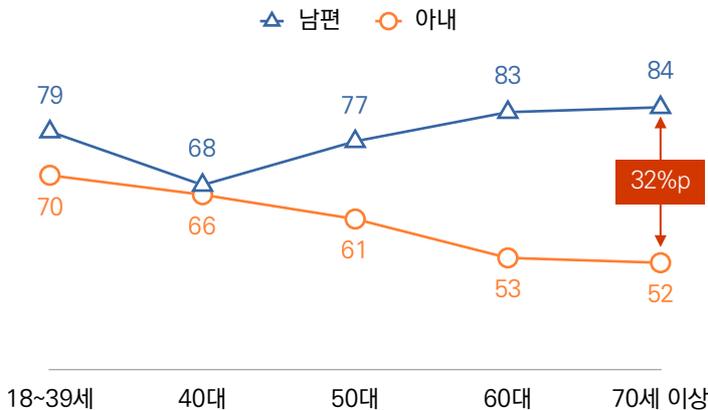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4 결혼 인식 조사] 결혼생활 만족도 조사', 2024.05.08.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4.03.22.~03.25.)

\*11점 척도로 만족 : 6~10점, 보통 : 5점, 불만족 : 0~4점

## 나이 들수록 부부간 서로에 대한 만족도 격차 크게 벌어져!

- 이번에는 성·연령별로 결혼생활 만족도를 살펴본다. 남성의 경우 '30대 이하' 79%에서 '40대'에 68%로 떨어지며 가장 낮지만, 그 후 점점 높아져 '60대 이상'부터는 80%대의 높은 결혼 만족도를 보였다. 반면 여성은 '30대 이하' 젊은층에서 가장 높고, 점차 나이가 들수록 결혼 만족도가 낮아져 '60대' 53%, '70세 이상' 52%까지 떨어져 부부간 격차가 점점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60대 이상 노년층의 경우 부부간 서로에 대한 만족도 격차가 30%p 이상 크게 벌어진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림] 성·연령별 결혼생활 만족도\* (기혼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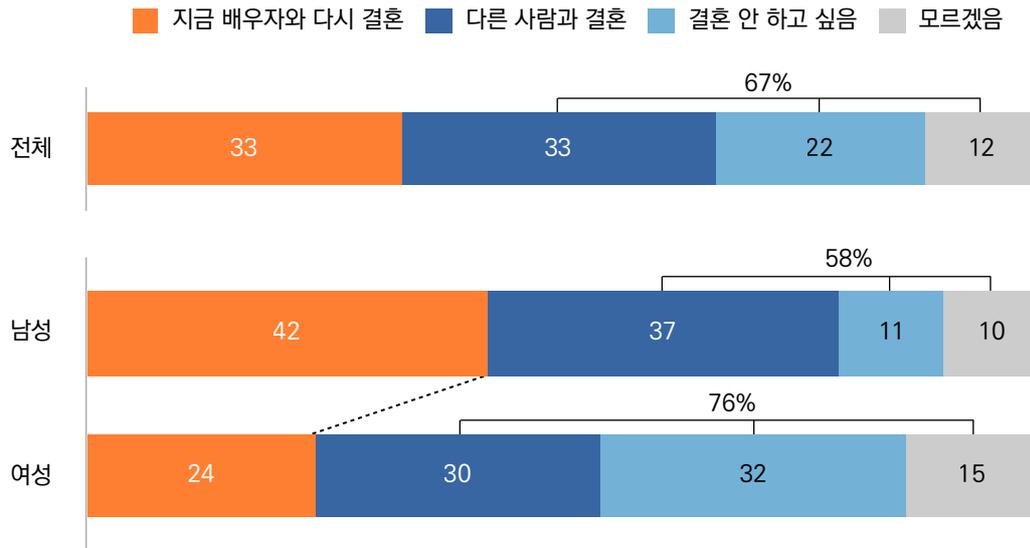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4 결혼 인식 조사] 결혼생활 만족도 조사', 2024.05.08.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4.03.22.~03.25.)

\*11점 척도 중 만족 : 6~10점 비율

## 기혼 여성 4명 중 3명,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배우자와 결혼 안 해!

- ‘다시 태어난다면, 현 배우자와 결혼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지금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겠다’ 33%, ‘다른 사람과 결혼하겠다’ 33%, ‘결혼을 안 하고 싶다’ 22% 등으로 나타났다. 기혼자 3명 중 1명만이 현 배우자를 선택한 셈이다.
- 여성의 경우 24%만 ‘지금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겠다’고 응답해 기혼 여성 4명 중 3명(76%)은 지금의 배우자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림] 다시 태어난다면, 현 배우자와 결혼 여부 (기혼자, 성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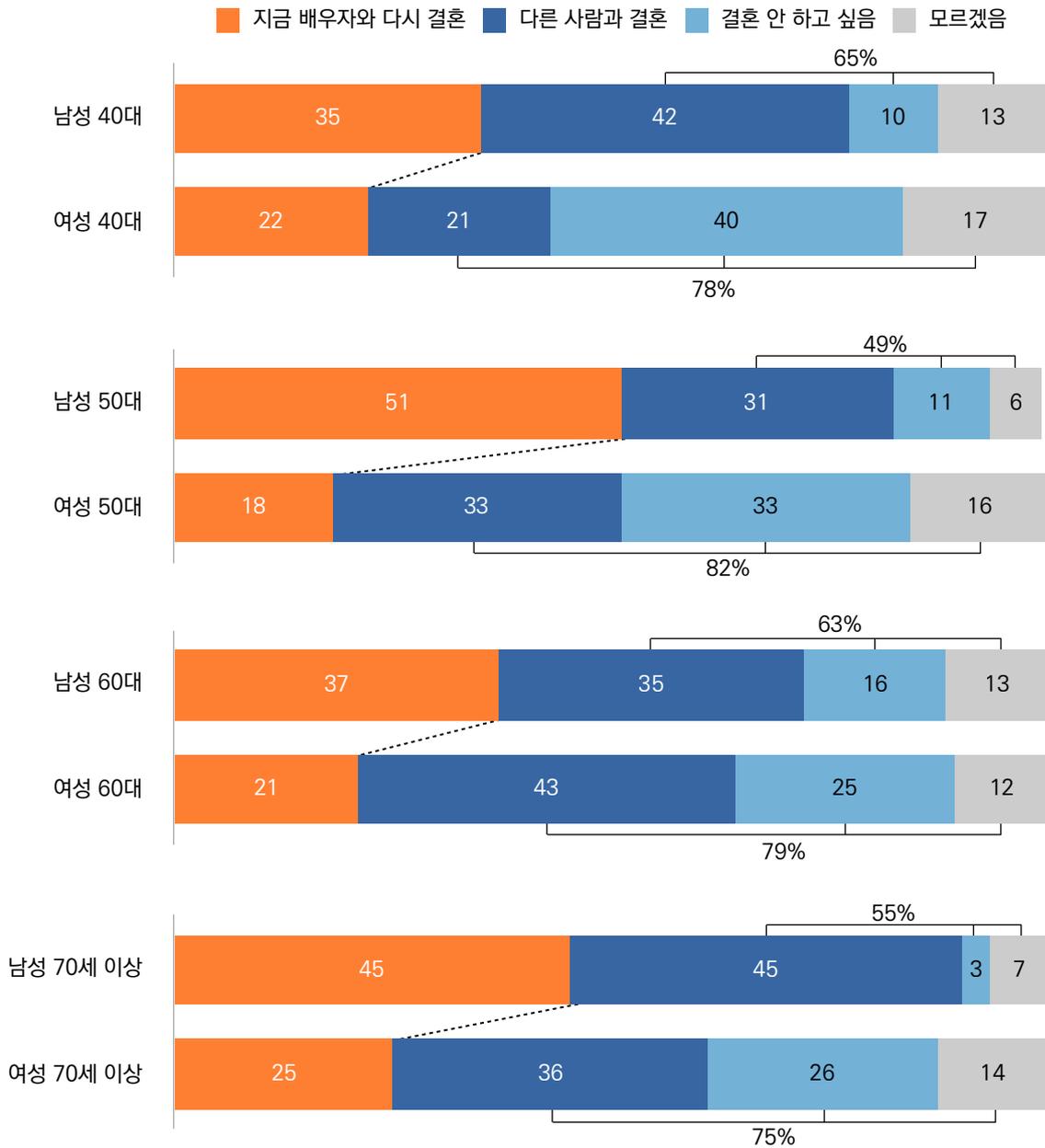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4 결혼인식조사] 결혼생활 만족도 조사', 2024.05.08.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4.03.22.~03.25.)

## 50대 부부, ‘현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겠다’ 인식 격차 가장 커!

- 성·연령별로 ‘다시 태어난다면, 현 배우자와 결혼하겠다’고 동의한 비율을 살펴보자. 2030세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지금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겠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50대 부부의 경우 ‘현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겠다’에 대한 인식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진 점이 주목된다.

[그림] 다시 태어난다면, 현 배우자와 결혼 여부 (기혼자, 성/연령별, %)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4 결혼인식조사」 결혼생활 만족도 조사, 2024.05.08.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4.03.22.~03.25.)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는 미국의 상담 전문가 존 그레이 박사가 2만 5천 명의 커플과의 상담을 통해 남녀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의 원인을 규명한 책으로 남녀 관계의 바이블이라 불리는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이다. 이 책의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남녀가 각기 전혀 다른 언어와 사고 방식을 가진 행성에서 왔지만,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상대가 자기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할 거라고 믿는, 바로 여기에서 갈등이 시작된다는 것이 이 책의 지적이다. 이번 넘버즈에서 다룬 부부싸움 조사 결과는 이러한 남녀의 서로 다른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흥미롭고 한편으로 씁쓸하기도 하다.

먼저 2030 기혼자 10명 중 9명(91%)이 부부싸움의 경험이 있었고, 3명 중 2명(65%)은 한 달에 1번 싸운다고 응답했다. 부부싸움의 이유로는 ‘일상 속 습관 차이’, ‘성격 차이’, ‘말투 차이’가 모두 합해 52%로 서로의 ‘차이’, 즉 ‘다름’을 인정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갈등이 과반을 차지했다. 이로 인한 결과인지 몰라도 2030 기혼자 3명 중 2명(65%)은 권태기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권태기의 주요 원인도 역시 ‘좁혀지지 않은 성격 차이(31%)’가 가장 많았다.

특히 남녀 간의 결혼 생활 만족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부부 만족도에서 나이가 들수록 남편들은 만족도가 올라가지만 여성은 오히려 반대로 떨어지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60대 이상의 경우 남편과 아내의 상대방에 대한 만족도가 30%p 이상 크게 벌어졌다. 또한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겠다’의 응답은 남성의 42%가 선택한 반면, 여성은 24%에 불과했다. 기혼 여성 4명 중 3명이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배우자를 거부할 것이라는 얘기도.

이런 부부간의 갈등을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성경은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갈등을 부정하기보다는 어떻게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사랑장’으로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않고, 성내지 아니하며’ 구절이 있다. 모두 나를 위한 것이 아닌 상대방을 향한 태도와 마음이다. 즉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은 것’이라고 성경은 강조한다. 서로 ‘다름’에 의해 갈등이 발생할지라도 ‘나’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할 때 갈등이 최소화 되는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부부가 갈등에 직면했을 때 ‘적극적인 대화를 통한 해결’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부부싸움할 때 서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그냥 말을 말자’로 나타났는데, 이는 나의 주장을 관철하려 보니 다툼이 반복되고 결국 대화까지 단절되는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다툼과 갈등의 축적에서 오는 권태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부간의 진솔한 대화’가 가장 많이 꼽혔듯이, 대화는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다.

실제적인 방안을 한가지 들면 ‘부부 소그룹’이다. 부부 소그룹은 부부관계를 되돌아보고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권태기 극복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사람으로 ‘부부 사이가 좋은 지인(33%)’이 가장 많이 꼽힌 것이 이를 증명한다.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비슷한 연령대와 환경을 가진 부부 소그룹을 통해 개인과 가정의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하고 말씀 안에서 치유됨으로 인해 부부관계의 회복이 이뤄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제도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비유할 정도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정의 시작이 부부라는 점을 감안하면 부부의 날이야말로 가장 가정의 달에 적합한 날이다. 비혼주의, 저출산 등 가족 해체가 진행되는 이 시대에 부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사랑과 회복이 있는 가정의 달이 되길 소망한다.